

#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순천시의 새로운 ‘녹색 도전’



신재생에너지·LED 교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확대  
아파트에 미니 태양광시설

전기자동차 보급 적극 지원  
생태도시 시민 삶의 질 향상



지난해 12월 시범가동에 들어간 순천시 공공 하수처리장내 태양광 발전소(총 996kW 규모).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이 필수다. 필요 이상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2015년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순천시는 17일 “재생 에너지를 찾아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올해를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정하고 생태수도 순천에 맞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열어 시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지역특성과 산업구조, 생활환경에 적합한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교육을 위한 시민, 학생 녹색에너지 교육 및 에너지 설계사 양성, 녹색에너지 교육, 체험센터 등을 조성한다.

또 기존 도심에는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제도 도입, 에너지 절약 실천 시민협력 공모사업 공공부문 LED 조명 교체도 이뤄진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수상 태양광발전도 보급하고,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 보급, 버스정류장 태양광 보급, 소수력발전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저장 및 이용장치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생태 인프라를 에너지와



‘에너지 자립마을’인 순천시 아룡마을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친환경 전기자동차 합동 전시 및 시승 행사.

결합해 에너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빈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주택에도 신재생에너지 도

입 공공건물에서 아파트, 일반주택까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 동·서문 태양

광발전 설비와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지

하주차장, 가로등, 계단실 등 공용부분 고효율 LED 변경,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주차장과 보안등 LED 교체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시는 아파트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아파트 배란다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자 400세대를 선정해 1차로 150가구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또 순천시는 올해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관내 법인·단체·기업 등이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단체·기업은 1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순천시는 연하원 주변에 위치해 화장장 마을로 불리는 아룡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80세대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1세대당 연간 전기료 81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마을 주요 시설인 마을회관과 건강관리실에 태양광 발전시설, LED 조명설치, 마을 입구에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했다.

조종훈 시장은 “환경이 보전된 ‘자립 에너지 도시’가 되면 시민 행복이 실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재생 에너지를 찾아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중·박선천기자 eikim@



## “살기좋은 아파트 이웃과 함께 만들어요”

‘순천시 마을지기들’ 발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작은 일부터 내 이웃과 함께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순천시 마을지기들’ 발대식이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발대식은 마을지기 사전 워크숍 영상시청과 각 팀별 사명선언, 마을지기 위촉패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마을지기들은 4개 지역(덕연, 왕조1, 왕조2, 해룡 신대지구) 16개 팀 160명으로 구성됐다. 여성(60%) 참여가 많고 토박이 엄마부터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전·현직 통장, 소외계층과 아파트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마을지기들은 사전 워크숍을 통해 ‘마을을 위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팀별 사명선언을 도출했으며 이날 발대식에서 사명 선언서를 조종훈 시장에게 전달했다.

조 시장은 시민 스스로 아파트 단위의 작고 소박한 자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을지기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순천시는 동네 한바퀴,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단위의 마을지기들이 마을을 위해 자치팀을 맡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까지 50개의 마을지기 조직을 목표로 꾸준한 발굴·육성에 나갈 계획이다.순천=김은중기자 eikim@

## 전남도·동부권 지자체들 대만관광객 유치 팸투어

전남도와 동부권 지자체들이 대만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순천시는 “18일부터 22일까지 대만 언론과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 전남 동부권 팸 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만과 접근성이 좋은 부산공항을 활용해 전남 동부권 광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부산항공, 전남도, 순천시, 여수시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요 코스는 송광사, 보성 녹차원, 낙안읍성, 순천만, 순천만 정원, 순천 드라마촬영장, 여수 금오도, 여수 레일바이크 등이다.

순천시는 생태, 문화, 역사 등 순천시 주

요 관광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대만 관광객 집중 유치를 위해 지난 1월에도 대만 여행사와 언론 매체 관계자를 초청해 홍보했다. 또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만 관광객 특성과 취향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팸 투어를 통해 대만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생동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남도 고구려 유적을 만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광양 등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ikim@

## 순천교도소 직업훈련 마친 수용자 지역기업 첫 취업

순천교도소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마친 수용자가 지역 기업체에 첫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올해 신설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출소한 A(36)씨가 최근 관련 기업체에 첫 취업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기업체와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 운영중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은 교도소에서 산업체가 원하는 내용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산

업체는 특화된 직업 훈련생을 채용하게 된다. 산업체와 직업훈련생 모두 윈-윈(Win-Win)하는 직업훈련이다.

취업에 성공한 A씨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돼 기쁘다. 앞으로 기업체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소장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에 더 많은 기업체와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 eikim@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9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222-9440	
정 읍 시 063531-5544	서 울 보 금 소 02313-5962	882-0175	
		264-2012	
		222-9054	
		225-6001	
		267-4782	
		873-4688	
		675-5530	
		525-3781	
		377-2352	
		369-0683	
		678-6605	
		312-1732	
		571-1658	
		306-1701	
		522-7752	
		512-8116	
		371-9818	
		961-9339	
		222-1986	
		224-6804	
		873-1600	
		973-2900	
		256-8212	
		376-6511	
		682-8112	
		959-1800	
		375-9682	